남구, 취약계층 '종잣돈 만들기' 돕는다

'희망'·'내일'·'청년키움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납입금 최대 7배로 키워…가입대상·지원액 달라

광주 남구는 일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빈곤층 구성원 및 청년 생계 수급자와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금융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일부 키움통장의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금액을 종잣돈으로 만들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본인 납입금의 3배 가량은 모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 31일 "차상위계층과 각종 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5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Ⅰ·Ⅱ)과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는데, 4인가구의 경우 본인이 10만원을 적립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48만원에서 최대 61만원이 지원된다.

3년간 적립하면 본인 납입액(360만원)의 7배 가량인 최대 2천6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매칭 지원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15~34세 청년 생계 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취업 및 창업, 대학교 입학 및 복학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장려금(10만원)과 내일키움수익금(8~15만원)이 지원된다. 장려금과 수익금 평균 지원액은 18만원 수준이며,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구성원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며 "사업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 서구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 광주 서구는 설을 맞아 지난 30일 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다중이용시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대석 서구청장(오른쪽)이 구청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5만2천500명 이용

하루 평균 1093명 찾아…청소년 놀이공간 자리매김

광주시가 시청 문화광장에 마련한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5만25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5일 개장한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은 48일 간 운영, 지난달 31일 폐장됐다.

이 기간 스케이트장과 썰매장 이용자는 하루 평균 1093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이용객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는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시즌에도 장애인의 스케이트장 이용 어려움을 감안해 스케이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스케이트 초보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무료 강습을 실시해 호평을 얻었다.

또 주말·공휴일에는 재능기부를 통한 DJ박스를 운영하며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은 이용객의 사연 소개와 더불어 즐겁고 신나는 스케이트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동반해 함께 온 가족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면 피로도 금세 풀린다"며 "다음 시즌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북구, 2018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상

전국 자치구 중 유일…인재 양성, 사회참여 확대 등 기여

광주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31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래 2016년 12월 재지정 되면서 여성의 권익 증진은 물론 성 평등, 돌봄 및 안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성친화도시로서 큰 성과를 거뒀다.

먼저 북구는 여성친화정책팀 신설과 민관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부동력을 확보했으며 성 평등 교육, 양성평등 사업 등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해 구정 전반에 성 주류화 제도를 정착시켰다.

또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 친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일상생활 곳곳에 불편함을 찾아 모니터링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 아이디어 제안, 문제점 발굴, 개선사항 도출 등 성 불평등 요소 해결에 앞장섰다.

그리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체 사업으로 여성전문동아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친화플래너 양성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왔다.

문인 북구청장은 "여성이 행복해야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만큼 여성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동구 주민들 "동명동 상생발전 힘 보탠다"

최근 설문조사서 응답자 83% 참여의사 밝혀

광주 동구 주민들의 대부분은 동명동 상생발전에 힘을 보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동명동 상생발전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3%가 향후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등 상생발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급격한 상업화로 인한 갈등·분쟁을 조정하고 동명동 상생을 위한 개선의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객관적 접근을 위해 기초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설문지를 작성했으며,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7일까지 13일간 동명동 사업장 132개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동명동 카페의 거리는 음식점·주점이 57.4%,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26.8%를 차지했으며, 상인의 81.1.%는 세입자로 구성됐다.

연령층은 20·30대가 전체 71.8%를 차지해 청년자영업자들이 많았다.

동명동 발전을 위한 개선의제에 대해서는 '주차문제'가 61.2%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문제'가 26.0%로 2순위, '상가임대료 상승문제'가 18.6%로 3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동명동 상생발전을 위해서 응답자 83.3%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상생발전을 추진할 조직으로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4.2%로 가장 높았다.

동구는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 상인,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기업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설문결과를 반영해 우리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지속가능한 카페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구차원에서 조례와 정책, 상생문화를 만들고 현안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ghskz@

서구, 설 연휴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시행

광주 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구는 귀성객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사건·사고 및 재난 안전대책, 비상진료 대책, 물가 안정 및 체불임금 관리 등 10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명절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동안 각 분야별 상황대책반에서 청소, 재난·재해, 가축방역 등 주민들이 편하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급하게 증명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365일 민원봉사실을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귀성객들로 붐비는 광천터미널 등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송사업체 지도 점검 등 귀성·귀경객들을 위한 교통대책도 마련됐다.

5일 설 당일에는 보건소, 6일에는 서창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